EUNSEOK CHURCH MATHETES

제24권

52

2016.12.25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제사장 직무

겔 44:15-19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용도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서 행해지던 것이 제사였고, 제사를 주관하던 이들을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직접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사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자로 여겨졌고 따라서 제사장의 위치와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왕도 신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신의 진노를 피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정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입니다.

인간은 삶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삶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상상하게 되고 신적 능력을 도구 삼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했고 그런 점에서 제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 행위로 자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만 소홀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를 기뻐하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가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던 그들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자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도 제사장도 이스라엘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 규례를 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신 의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할 도리는 다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제사 규례를 세우신 의도를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제사장 직무를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제사하면서

도 제사 규례를 세우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또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성소에 들고 가면서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15절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는 말씀처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 28: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의식이 있었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자신이 죽음의 존재인 것을 알아야했고 죄 없는 제물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즉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 없이 죄 용서는 없음을 제사를 통해서 배우며 주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보여주는 일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이며 제물의 죽음 없이는 죄가 용서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제물의 희생의 피에서 생명을 봅니다. 때문에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는 그 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있게 한다는 사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죽을 존재인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관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삶의 중심에 자신이 자리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 자신을 위해 하게 됩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을 찾고 제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자신의 높아짐과 영광을 얻기 위한 것으로 모아질 뿐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하여 하

나님을 떠난 것이고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 직분을 자기 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민 18:6,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회막의 일을 하게 하신 레위인이며 제사장 직분입니다. 회막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선물이 된다면 제사장은 회막에서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만으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이론으로써 마음에 밖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제사장은 실패했고 결국 그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사장 직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에 대해 실패했지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성물의 직분은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사람을 두어 그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면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소홀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성소의 지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소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하며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세상에서의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이득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사장 사독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의 명을 받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칫 아도니야에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사독은 눈에 드러난 현실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가운데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에 관심 두지 않는다면 자연히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6-19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

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과 옷을 매는 띠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는 속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저주의 모습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땀은 인간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땀이 나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수고와 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이 성전이 증거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봉사하는 자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저주에 속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수고와 무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의 세계입니다. 거룩의 세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며 20-27절의 내용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행해야 할 규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규례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두어야 할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로 인한 열매를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완성의 세계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길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쏟아내면 신이 자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야 말로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한 저주의 존재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롬 15: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할 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게 하는 것을 복음

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물이란 죽은 존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소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와 함께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세우신 것은 소나 양을 바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존재로 나와야 함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와 제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제물의 참된 의미가 살아있어야 참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바쳐지기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제물이 되어 바쳐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선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제물 삼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도 남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믿음의 본

빌 3:17-19

믿음 93강 12. 4일 설교

목사는 교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목사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 시각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시각과 기대를 알고 있는 목사들은 자연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목사로서 비난 받는 행동보다는 칭찬과 존경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사다움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제아무리 본이 되는 행동을 한다 해도 결국 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설령 표면적으로는 본이 될 행동이 있다 해도 속마음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죄로 가득합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라 해도 그 속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믿음도 좋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 교인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사에 대한 큰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여지가 많은 것이 목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다운 인품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하지만 목사다운 인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격, 말, 표정, 행동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범위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산에서 도를 닦고 수양하는 승려들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인품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인품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없어도 되지만 목사에게는 있어야 할 인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사의 인품을 따지고 요구하는 것은 목사와 일반 교인을 나누는 것일 뿐이고 목사를 타박하고자 하는 구실로 삼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내세우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은 완벽하니 나를 보고 본받아서 실천하라' 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교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본받으라' 고 말할 만큼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여긴 사람입니다. 늘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고 사망에 갇힌 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애통해했던 바울이 자기 행동을 보면서 '완벽하다' '부족하다' 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취지로 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고전 1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말합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본 받아라고 촉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편으로 보면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즉 바울 스스로 고난을 의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십자가였고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바울 또한 십자가의 길로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은 예수님의 영광과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십자가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살지 않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길로 갔던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 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된 이들의 공통적 사고방식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으로 굳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반발이 있을 뿐,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 성과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행하심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노력과 성과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길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는 바울의 고백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20-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영원히 하늘에 있게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울의 이러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믿음에 이끌려 간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라면 바울의 길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 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의 자발적 의지로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동일한 길로 가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과 동일 하

다면 바울이 믿음에 의해 가게 된 길로 우리 또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율법을 말하고 인간적 노력과 행함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대상을 찾는다면 그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에게서 믿음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지향하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스리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 되어짐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 다스려지며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한 믿음에 의해 동일한 길로 인도받고 있는 형제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믿음에 약한 자가 있고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같이 짐을 지고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표면적인 행동이나 열심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드러난 행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실천, 성품, 인품을 따지면서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자답지 못하다' 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원수 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본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생활

출 2:16-25

6강 2016. 12. 21일 설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은 한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경을 볼 때 늘 주지해야 하는 것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다면 예수를 빙자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행하신 일과 무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도 비록 표면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모세의 인생에 있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세를 도구 삼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 입장에서는 인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운 일이 바로의 궁에서 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시각에서 본다면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적기는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십 세의 나이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장성하면서 온갖 교육은 다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모세에 대해 설교하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강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강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하는 것보다는 히브리 사람을 모아 애굽에 대적하여 탈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더 어울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뿐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쓸모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애굽의 사고방식입니다. 힘으로 동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애굽의 사고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악의 속성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힘없는 약자는 무시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가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현장인 세상의 실체입니다.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했던 모세는 이제 애굽의 힘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 한다면 자신보다 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굴복하게 되는 이것이 세상의 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가 하루는 우물곁에 앉아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일곱 딸을 우물에서 쫓아냅니다. 제사장의 딸들보다 늦게 온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일곱 딸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목자들이 왔다는 것을 보면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인데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만으로도 이스라엘 지도자 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이 버려지는 길로 모세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끌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꼬이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되는 것

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들이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고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통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우엘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으면서 40년을 미디안에서 생활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다' 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와 미디안에서 생활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모두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게르솜' 이란 이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을 타국으로 지칭하는 것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디안을 타국으로 지칭하는 것은 애굽을 자신의 나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만약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돕고 구하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애굽에서의 히브리 민족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적 사고방식에 의한 구원관입니다.

지금도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구원관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해주기 위한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그러한 구원관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일하심도 아님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진 자신을 꿈꾸는 것입니다.

23-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의해 미디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모세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소식

1. 오전 예배 후에 성탄절 행사 있습니다.
2. 2017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 두 종류가 있으니 각 한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3. 구제부, 장학부, 선교부는 1년 수입과 지출 합계를 회계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주일에 2017년 예. 결산과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5. 점심식사 후에 당회모입니다.

비누풀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 요 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88장
교 독 문 ····· 119(성탄절1)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121장
성경봉독 ····· 겔 44:15-19

◐ 제사장 직무(108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성희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02장
기 도 ····· 신미정 집사
찬 송 ····· 560장
성경봉독 ····· 엡 2:8-9

◐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믿음96강) ◐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45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다음주 기도 : 이경숙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출애굽기 강해 7강